

청소년의 내적 변화 이끌 독서교육

김용철 |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공동대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주성과 독창성을 길러 줌으로써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육은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만을 전수함으로써 단순한 기능인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올바른 정신과 혼을 길러주는 참된 인간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온갖 비리와 부정이 만연하고, 학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바람직한 품성의 도야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은 교사나 학부모의 훈계나 설득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해 내적 변화를 일으켜야 비로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 사고하고, 사색하기 위해서 독서한다. 청소년들이 독서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독서를 통해 사고하게 될 때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길러 폭넓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독서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선각자들의 빛나는 예지와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무한대의 우주 앞에서 경이를 느끼고 사

물의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

독서는 창조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독서라고 생각한다. 종이 위에 기록한 정보나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정보는 기록매체의 특성만 다를 뿐, 필연적으로 문자의 판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독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첨단기술의 개발에 따라 오늘날 인간의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해졌다. 하지만 인간의 정서는 반비례로 메말라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가치관의 전도와 사고력의 결핍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도된 가치관과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치관을 확립하고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훈계나 충고, 또는 질책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신적 문제는 독서를 통해 내적 변화를 일으킬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의 교육은 종래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독서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각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과 같은 종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결과제다. ■

통권 제308호 | 2001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박천홍

기자 강성민 김장근

박옥순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